



## 이달의 포커스 뉴스

“본사의 영업 기능들을 현지로 이전시켜  
현지화에 가속도를 높이려 합니다.” by 태평양물산

23P

베트남 투자? 베트남 투자법에 따른 자본금 설정부터!

27P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
☑ <팀코리아협의체 동정>	베트남엑스포한국관, 하이퐁시 세미나 19
☑ <기업탐방>	태평양물산 송재익 소장 23
☑ <법률> 베트남 법률상 자본금 설정	전현우 변호사 27
☑ <중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그 특징	대한상사중재원 30
☑ <통관> 베트남 통관 HOT 뉴스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32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빈롱성>	33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39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44

HAPPY  
LABOUR DAY





## 베트남 1분기 사회경제 통계 발표

- 베트남 세계 경기 침체 속 1분기 3.32% 성장을 나타내
- 관광업 회복, 제조업 침체 속 추후 경기부양책 기대

베트남 통계총국(GSO)은 2023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1~2023년 조사 기간 중 2020년 1분기 성장률인 3.21%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한 수치이다. 이 중에서 농림어업은 2.52%, 서비스업은 6.79% 증가하였으나, 산업 및 건설업은 0.4% 감소했다.

### 기업 활동 추세

2023년 1분기에 5만7000개사가 신규 설립 및 영업 재개를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 감소한 수치로 월평균 약 1만9000개사가 신규 등록 및 영업 재개를 신고한 셈이다. 폐업한 기업은 6만200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4% 증가해 월평균 2만100개사가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는 1분기의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경기활동의 일시적 위축 현상으로 보인다.

### 투자 동향

2023년 1분기 실현 투자자본은 현재 가치로 약 583조1000억 동(248억 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국영 자본은 11.5% 증가했는데,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 투자 자본 지출 이행을 촉진하는 정부의 결단과 노력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 무역수지 40억7000만 달러 흑자

2023년 1분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감소한 791억7000만 달러, 수입액은 14.7% 감소한 751억 달러이다. 주요 수출입국과 관련해 미국이 수출 규모 206억으로 평소와 비슷하게 베트남의 1위 수출 시장, 중국이 수입 규모 236억으로 베트남의 최대 수입시장으로 나타났다. 상품 무역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억 달러 흑자에 비해 증가한 40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시사점

1분기 베트남은 관광업의 빠른 수요 회복으로 이에 동반한 숙박업, 요식업 등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띠는 듯 하였으나 작년 동기 대비 높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경제성장률 3.32%로 평탄한 한 분기를 버텼다고 볼 수 있다. IMF에 따르면 올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은 2.8%로 전망되며, 한국 1.5%, 미국 1.6%, 일본 1.3% 등으로 대체로 2% 미만을 예측하고, 이는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 긴축 정책 등의 영향이다. 이에 2분기를 맞이한 시점의 세계 경기 위축 기조 속에서, 제2의 공급망 기지 및 한국의 제조업 동반자로 불리는 베트남이 어떤 경기부양책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 베트남 다낭, 디지털 관광도시를 꿈꾸다

- 팬데믹 이전 '경기도 다낭시'로 각광, 베트남 최대 관광도시 위상 회복
- 관광분야의 다양한 ICT기술 접목 시도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업기회 발판 마련

### 다시 활력을 찾고 있는 베트남 관광업계

올해 들어 베트남을 찾는 국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1-3월 베트남을 찾은 국제 관광객의 수는 269만9556명으로, 전년 동기(2만2358명) 대비 크게 확대되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의 수는 2023년 1-3월과 3월 기간 각각 81만938명과 25만649명으로 전체 베트남 방문 관광객 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중부의 대표 관광도시인 다낭을 찾는 관광객 또한 크게 증가되었다. 다낭시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다낭을 찾은 관광객 수는 총 368만7000명으로 2020년의 279만1000명, 2021년 119만 명 대비 크게 늘어났다. 2019년 방문객수가 869만 2000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아직 팬데믹 직전의 고점까지는 차이가 큰 상황이나 방문객 수와 매출액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분기 이후 전망도 기대된다. 중국이 올해 3월부터 그룹 관광을 개방하는 시범 국가 목록에 베트남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다낭시 관광 산업에도 큰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낭시는 올해 마카오·일본·라오스 국제노선 복원 및 신규 개통, 인도·카타르 연계 각종 MICE 지원프로그램 확대, 골프 및 웨딩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4년만에 개최되는 다낭 국제불꽃축제(DIFF), 아시아 국가음악 축제 개최 등 여러 국제행사 유치 또한 관광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 신기술과 결합을 시도하는 다낭의 관광산업

최근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관광 마케팅 분야에서의 ICT 기술 활용이 활발해졌으며 이는 현지 관광산업에서도 중요한 변화 요인이 되고 있다.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2021-2025 관광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지역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호텔, 여행사 등 다양한 관광 관련 산업 분야에서 ICT 기술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여러 관련 기술을 관광 산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관광 산업 관련 디지털 전환 니즈가 확산됨에 따라 여러 ICT기술의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VR/AR,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 서비스 관련 ICT기술 및 솔루션 접목은 다양한 분야로 파생될 수 있다. 예컨대, 드론을 활용한 영상 스캔 SW는 주요 명소별 관광객 모니터링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메타버스 또한 온라인으로 관광 상품을 소개 또는 홍보하는 프로그램과 적절히 접목될 수 있을 것이다. KOTRA 다낭 무역관은 오는 5월 30일 한국 기업의 베트남 중부 ICT 시장진출을 위한 사절단을 개최할 예정이다. 디지털 관광도시를 꿈꾸는 다낭시에서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ICT 기업의 진출을 기대해 본다.





## 베트남 내 상표권 침해 시 대응방안

- 중요성이 커지는 한국 제품의 베트남 내 상표권...침해 발생 전 예방 노력이 더 중요

### 상표권 침해 시 대응 방법

베트남 내에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사 상품의 위조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쇼피, 라자자 등과 같이 베트남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경우 위조품 유통을 막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으나, 상표권자가 이를 확인하고 불법 유통되고 있는 위조품 판매글 게시 중단을 요구할 경우 상당히 협조적이다. 시장조사 결과 침해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경고문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침해자가 추후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침해행위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과적인 초기대응 방법이다.

법률대리인을 통한 경고문 발송만으로 효과가 없거나 침해 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행정단속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조사와 행정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단속 결과 침해행위가 확인되고 행정청에 의해 압수, 벌금 부과 등과 같은 행정처벌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피침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률분쟁이 가시화된 적이 많지 않고 전문 법원 및 인력 부재 등의 까닭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에 상응하는 의미있는 액수의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침해 발생 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침해 발생 전 예방 노력이 더 중요

베트남의 경우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 의해 상표가 선등록되어 그자가 상표권자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통상 이같은 형태의 침해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기존 바이어와 같이 거래관계가 있는 자에 의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 공급계약 또는 독점판매계약 등과 같이 거래를 개시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상표에 대한 권리를 분명하게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 KOTRA의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KOTRA는 호치민 무역관 내 IP-DESK 설치를 통해 현지에서 상표권 등록을 위한 업무를 보조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우리 기업 제품에 대한 위조품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필요에 따라 베트남 현지 단속기관에 직접 고발하여 조사를 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 1회 위조상품 식별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베트남 지식재산국, 시장관리총국, 세관 등 위조품 단속 현지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위조품 식별방법을 교육하고 침해 실태를 알리고 있다.







## 베트남 최대 수출국 미국, 수출 시 챙겨봐야 할 포인트는

- 탈중국 생산 기지로 주목받는 베트남, 대미 수출 점진 증가
- 미국 수출 시 무역 구제 조치 대상 여부 확인 필수

미-중 경쟁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생산 차질까지 발생하자 중국에 생산시설을 가진 기업들의 탈중국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 생산기지를 가진 대표적인 기업인 애플도 최근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애플워치, 에어팟을 2022년부터 생산하는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다변화 기지로 베트남이 고려되고 있다.

### 베트남-미국 수출 시 관세 혜택은?

미국과 베트남은 양국 관계 정상화한 이후 2001년 양자무역협정(BTA, Bilateral Trade Agreement) 및 2007년 WTO 가입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 최혜국대우(MFN) 세율로 수입이 가능해졌다. 한편 베트남과 미국의 최초의 FTA로 기대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공식 탈퇴함에 따라 2023년 현재까지 베트남과 미국은 공식적으로 FTA가 체결된 바 없다.

### 미국-베트남 FTA 없어도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도

현재 베트남과 미국 사이에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더라도 미국 수출 시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기업의 원산지 확인 관련 주의가 필요하다.

### 우회수출 방지 무역구제조치 증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을 제3국에서 우회해 수출할 가능성 커지자 미국은 이에 대한 조치로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조사 건수는 2022년 12월 기준 총 51건으로 전체 미국의 무역구제 조사 건수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실제 2017년 2월부터 63.86~76.64%의 반덤핑관세 및 75.6~190.71%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재에 대해서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 여부 및 베트남 기업들의 우회 수출 가담 여부를 2020년 5월부터 조사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은 2023년 4월에 예정돼 있다.

### 시사점

미-중 무역 경쟁이 지속되면서 베트남의 하이테크 제조기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더 많은 FDI 기업이 베트남의 진출을 고려해볼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은 제조 중간단계 기지로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부품 산업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특히 전기, 전자 및 기계 산업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부품을 한국, 중국, 일본에서 조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제조기지를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주요 부품이 완성 제품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우회수출로 인한 무역구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베트남 정수기 시장 동향

- 베트남 정수기 시장, 음용수 부분만이 아닌 가정 전반 생활 용수의 정수 및 산업용 정수기 시장도 확대될 전망
- 코로나 19 이후에는 온라인 등 유통구조 변화에 주목해야

가정용 정수기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 깨끗한 물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이유로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주로 음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수기를 설치하나 일부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식수용과 함께 세탁용, 세면용, 싱크대용 등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 판매방식

일반적으로 정수기는 초기 설치 비용이 커서 소비자는 렌탈, 리스 등의 방식을 이용한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아직 렌탈, 리스 등의 구매방식은 생소한 개념으로 정수기 구매 시 대부분 일시불 결제를 사용하고 있다.

### 어떻게 음용수를 확보하는가?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의 가정용 정수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는 많아졌지만 정수기 구매의 초기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18.5~20L의 큰 생수통을 배달시켜 먹는데, 물을 모두 소요한 후에는 빈통을 반납하고 다시 새통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음용수를 구매한다.

### 수입 규모

#### 1) 주요 수입국

베트남의 2022년 정수기 총 수입금액은 1억 3,098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이 약 38%의 비율을 차지, 4,926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약 15%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1,996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하며 2위를 기록했다.

#### 2) 대 한국 수입 동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2021년 연속해서 수입이 하락했지만 코로나19 이후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수입액이 152% 증가하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 시사점

#### 1) 코로나19의 이후의 베트남 정수기 시장

코로나19는 유통구조와 함께 정수기 제품 자체도 변화 시켰다. 기존 기사가 방문하여 필터를 갈아주고 정수기를 관리해주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방문이 불가능해지자 정수기 업체에서는 소비자들자가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개발하여 기사가 갈아주지 않아도 소비자가 필터를 직접 교체시킬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필터 제품을 고객에게 택배 등으로 전달해주면 고객이 수령하여 직접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정수기 업체에게는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정수기 유지 비용 하락의 효과가 있다.





## 가지개를 켜는 베트남 관광시장

- 베트남의 1분기 외국인 관광객 269만 명...전년동기대비 30배 증가
- 무비자체류 기간 연장 등 관광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

베트남 관광 시장은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 366만 명은 2021년(157만3000명)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며 2023년부터는 베트남 정부의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비자 정책 완화, 중국 국경 개방 등의 긍정적인 변화로 베트남 관광시장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닫혔던 중국 국경문 개방

중국 국경이 재개방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수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베트남 방문 중국인 관광객은 58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의 30%를 차지하였다. 중국 재개방에 힘입어 베트남의 올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은 269만 명에 이르렀으며, 전년 동기 대비 30배가 증가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계 관광객이 27만 명을 달성하였고 한국의 경우 베트남 방문 최대 외국인 관광객으로 81만여 명을 달성하였다.

### 베트남 관광 회복을 위한 비자정책 완화

최근 정부는 새로운 비자정책 제안 서류를 국회에 보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무비자 체류기간 연장(15일→45일), △전자비자 체류기간 연장(30일→90일), △무비자 및 전자비자 대상국 확대, △복수 입국 허용 등이 있다. 팜민찐 총리의 인가와 공안부 장관이 서명한 이 제안은 오는 5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관광지 활성화와 함께 살아나는 지역 경제

베트남의 여행 산업이 조금씩 활기를 띠면서 지역 경제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트립어드바이저의 설문조사로 선정된 아시아 베스트 관광지 중 2곳인 하노이와 다낭의 경우, 지난 1분기 숙박 및 식사 서비스 매출이 각각 12.5%, 73.5% 상승해 지역 경제가 함께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시사점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베트남 관광산업은 회복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호치민에서 여행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베트남 관광 시장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프라 미흡 등의 요인으로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만큼의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라고 전했다. 베트남의 관광 시장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실한 인프라 재구축, 새로운 여행상품(관광지 발굴 등) 마련, 관광의 디지털 전환(Travel-tech) 등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양질의 관광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자 정책 완화, 점차 늘어나는 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되는 지역 경제 그리고 코로나 안정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베트남 관광 시장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베트남 노무관리 ABC

- 해외진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현지 노동법규에 대한 이해 확대
- 베트남 현지 노동법 관련 경영지원 세미나 개최

### 근로시간

정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 원칙이며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일 1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야근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초과근무는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초과 근무시간은 1일 정규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1년에 2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하기 산업, 직종, 업무의 경우 1년 300시간까지 초과 근로가 가능하나 연 200시간 초과근무 시행 시에는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급 인민위원회의 노동 전문기관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완료한 경우,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종료된다. 만 12개월 이상 상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며 각 근무 연수 1년마다 월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고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퇴직금이 아닌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 12개월 이상 상시근무한 근로자에게 각 근무연수 1년마다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소 2개월분의 임금을 부여해야 한다.

### 분쟁 발생 시 구제방안 및 효율적인 노무관리 원칙

노동법상 권리 및 의무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간 분쟁 발생 시에는 사업장 소재 성급 인민위원회 노동전문 기관(노동보훈사회국)에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해결 접수기관은 5영업일 이내에 ① 노사조정관 또는 ② 중재협의회에 이첩하거나 ③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

상기 3가지 구제 방안의 세부절차 또한 베트남 현지 노동법에 자세히 안내돼 있어 필요 시 우리 기업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진출기업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분쟁 해결 과정이 한국과 달리 매우 복잡하고 처리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회사 이미지까지 실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전에 불가피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사 내 인사 및 노무 관리 지침을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노무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시사점

기업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 본국과의 거리, 행정절차 및 법제도의 상이함 등의 해외진출 ‘비용’ 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외진출에 나선다. 해외진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비용 또는 리스크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신흥국에 진출하는 경우에 시장의 크기, 국내에 비해 낮은 경쟁 등의 요소도 고려 요인일 수 있지만 대개는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현지의 노동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노동력 활용의 이점은 해외진출 리스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 베트남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이끄는 인구구조의 변화
- 젊은 소비층이 이끄는 디지털 트렌드와 소비기호도 주목해야

###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이끄는 인구구조의 변화

#### 1) 빠르게 확대되는 중산층

McKinsey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11달러를 소비할 수 있는 베트남의 중산층 소비자 계층은 2000년에는 전체 인구의 10% 미만이었으나 현재 40%까지 증가했다. 향후 10년간 중산층 소비자가 3600만 명 증가해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할 전망이다.

#### 2) 도시화 가속과 중소도시의 성장

베트남 통계청의 도시화 중위 시나리오에 의하면 베트남은 2030년까지 도시화 50%, 2040년까지는 약 60%를 달성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도시인구 비율은 현재 37%에서 2030년 4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향후 10년간 베트남 도시인구가 약 1000만 명 증가하는 수치이다. 도시는 향후 10년간 전체 소비 증가의 약 90%에 기여하며 베트남의 성장 엔진이 된다는 전망이다.

#### 3) 가계 규모의 축소에 따른 총가구 수의 급격한 성장

베트남 가구의 평균 인원 수는 1999년 4.5명에서 2019년 3.5명으로 지난 20년간 약 20% 감소했다. 이는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995~2000년 2.25명에서 2015~2020년 2.06명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현대적인 생활방식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다세대 가족의 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 4) 여성의 경제권 강화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9년 베트남 여성의 남성 대비 노동 참여율은 88%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존에는 단순노무직이 여성 일자리의 큰 부분을 차지했으나 금융과 디지털 통합, 기술 보유에 따라 고소득 일자리로 전환할 기회가 확대되었다.

#### 5) 노인 인구의 소비 증가

베트남은 중위 연령 32세의 젊은 국가이다. 하지만 베트남 통계청 산하 인구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이미 인구의 7.6%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2035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약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디지털 시장의 확대가 변화시킨 소비재 유통망

#### 1) 디지털 네이티브가 주도하는 전자상거래

베트남은 1980~2012년 출생자인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모두 포함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2030년까지 전체 소비의 40%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들은 온라인과 모바일 생활이 일상화돼 있다. 2020년 기준 베트남 전체 인구의 70%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일상적인 소비와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급격한 디지털화가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티키(Tiki)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어 2015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4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이 수치가 4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쇼퍼 엔터테인먼트의 등장

디지털 네이티브는 소비재 유통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현지 SNS Zalo는 베트남 최대 규모로 52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중요한 마케팅 채널로 자리 잡았고 Z세대의 55%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튜브 쇼츠(Youtube Shorts), 인스타 릴스(Instagram reels)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젊은 베트남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소셜 셀러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고 구매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는 다른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비형태이다.

## 3) 전통적인 남북 구분을 비롯한 지리적 차이의 감소

베트남은 남북으로 1600km 뻗어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지역별로도 문화가 다르다. 베트남의 가장 큰 소비의 중심지인 하노이와 호찌민은 기후와 역사의 차이로 소비자의 행동과 선호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베트남에서의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은 고객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지역별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정치·행정 중심지인 하노이는 미래의 가치를 중시하고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프리미엄, 브랜드 네임을 선호하고,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인 호찌민은 현재의 가치를 중시하며 실속을 따지는 가성비, 소비자의 개성 강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각각의 니즈에 초점을 맞추었다.

## 4)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옴니채널 구축

베트남 온라인 시장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약 75%가 '구매 전 웹사이트, 페이스북, 오프라인 매장 등 여러 채널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 사용자의 대부분이 제품 소비를 다중 채널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해당 브랜드의 페이스북, 브랜드 웹사이트 등을 계속 팔로우 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는 소비 행동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기업은 온라인 구매와 오프라인 구매 및 고객 요청 사항을 수집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확보하는 등 옴니채널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5)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전자결제

전자결제를 통한 구매 활동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적인 혜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됐다. 베트남의 경우 전자결제의 비율이 이커머스 판매 매출 결제의 61%를 차지하며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비율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필수적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에 전자결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시사점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조차 베트남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 1억의 포스트 차이나 소비시장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 베트남의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시장 확대, 선진화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등 베트남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베트남 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 베트남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베트남 시장에 맞게 현지화하고 타깃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마케팅 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 베트남 정부, 부가가치세 10%-8%로 2%p 인하 예정

베트남 재정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부가가치세를 기존 10%에서 8%로 인하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정기 국회는 다음달로 예정되어 있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상정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부가가치세 인하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앞서 재정부에서 내수 소비 및 제조업 진작을 위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음. 부가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약 5조 8,000억 동으로 예상되며,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에 총 7,000억 규모의 세금 및 수수료 35개 항목을 인하할 것을 제안함.

[VN Express, 4. 18]

### ▶ 베트남, 3월 자동차 판매량 전월대비 30% 증가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VAMA)에 따르면 2월 판매량이 전월대비 33% 증가한데 이어 3월에도 30,038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면서 판매량이 전월대비 30%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판매량이 증가했음. 하지만 1월 판매량 급감으로 인해 2023년 1분기 70,400대를 판매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하여, 국산차는 34%, 수입차는 4% 감소했음. 월 판매량 급감으로 인한 자동차 제조업체와 딜러들은 등록비 지원 혹은 현금 공제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이것이 2월과 3월 자동차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됨.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는 2분기에 여행 수요가 증가되고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면 그 영향을 받아 자동차 판매업 또한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음.

[Vietnam Plus, 4. 17]

### ▶ 세계은행, 베트남에 공공 투자 지출 확대를 통한 총수요 견인 권고

세계은행은 지난 4월 13일에 베트남 4월 거시경제 보고서를 발표함. 2023년 1분기 베트남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면밀한 상황 주시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경우 공공 투자 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뒷받침 해야 한다고 권고함. 또한 물가상승, 환율 압력, 금융 시장 위험성 등을 강조함.

[Vietnam Plus, 4. 13]

### ▶ EuroCham(유럽상공회의소), 유럽기업 36%의 상위 5대 투자 목적지는 '베트남'

주 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 기업들 중 36%가 베트남을 상위 5대 투자처로 꼽았음. 또한, 유럽상공회의소 디시즌랩(EuroCham Decision Lab)이 발표한 베트남의 기업환경지수(BCI)가 48.0 포인트를 기록하여, 베트남에서의 사업과 투자환경에 대한 유럽 기업에 대한 인식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함. 현재 측정된 베트남의 BCI 지수는 2022년 말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2022년 말 대비 세부내용 중 베트남에 낙관적 전망을 하는 응답자가 8%, 매출과 주문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 7% 증가했지만 베트남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응답자는 6% 감소한 것으로보아 유럽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응답자의 36%가 상위 5대 투자 목적지로 베트남을 꼽으면서 유럽 기업들에게 베트남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러나 투명성 부족, 비효율적 행정, 비자 및 취업 허가 취득의 어려움, 복잡한 통관절차는 베트남이 더 많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장려하기 위해 해결해야하는 과제들로 남아있음.

[Saigon News, 4. 12]



### ▶ 박리에우성 LNG 화력발전소, 전기요금 협상으로 착공 지연

베트남전력공사(EVN) 및 싱가포르 델타 오프쇼어 에너지(Delta Offshore Energy)간의 전기요금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베트남 박리에우성 인민위원장 팜 반 티에우(Pham Van Thieu)는 총 9차례 협상에도 전기요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힘. 환율 적용 방식, 베트남 정부에 대한 프로젝트 자금 대출 보증 요구 등의 문제도 함께 대두됨. 착공 시기 관련, 당초 계획은 2020년 박리에우성 투자 승인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련 허가 요건 충족 및 착공이었으나, 현재로서는 미정임.

[VN Express, 4. 11]

### ▶ 베트남, 매년 식료품 수출 300억 달러 목표

베트남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식량 및 식료품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의 식료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 계획은 국가 식량안보 및 세계 식량안보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농림수산물 관련 기업들의 50%가 국가 추적 포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Vietnam Plus, 4. 10]

### ▶ 베트남, 제조업 주문 감소로 1분기 실업률 증가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기업들의 주문 감소로 인해 14만 9,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이는 직전분기대비 13% 증가한 수치임. 실업률 증가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동나이성(3만 2,600명), 빈증성(2만 1,700명), 박닌성(1만 4,000명), 박장성(7,700명) 순으로 집계됨. 1분기 일시 해고 근로자는 29만 4,000여 명에 이르는데, 이 중 83.8%는 신발, 의류, 목재 가공 분야의 외국 기업이었음. 주문 감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은 메콩 델타 지역으로, 직전 분기(2022년 4분기) 실업률 1.5%에서 2023년 1분기 1.75%로 증가함. 통계청은 고용 보장을 위한 인적 자원 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특히 주문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은 신발, 의류 사업 등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VN Express, 4. 9]

### ▶ 베트남, 1분기 쌀 170만 톤 수출...전년동기대비 19% 증가

베트남 세관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1분기 170만 톤의 쌀을 수출하였으며, 쌀 수출액은 9억 달러 이상을 기록함. 이는 전년동기대비 수량 및 가치가 각각 19%, 30% 상승한 수치임.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베트남 쌀은 지난 몇 년간 품질과 수요 향상에 성공하였으며, 수출된 대부분의 쌀은 메콩삼각주 지역에서 생산됨.

[VN Express, 4. 8]

### ▶ 베트남, 3월 수출액 전월대비 13.5% 증가

베트남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3월 수출액은 295억 7,000만 달러로 전월대비 24.4% 증가함. 3월 수입액은 289억 2,000만 달러로 전월대비 24.4% 증가함. 2023년 1분기 총 수출액은 791억 7,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9%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751억 달러로 14.7% 감소하였음. 이에 베트남은 1분기 40억 7,0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음.

[Nhan Dan, 4. 4]



### ▶ 베트남, 사회주택 100만 호 건설 승인

지난 4월 3일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 100만 가구의 사회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는데, 해당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428,000호의 집을 짓는 것을 첫 목표로 함. 해당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약 849조 동(36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투자자 및 주택 구매자를 위해 베트남 국영은행과 협력하여 120조 동(약51억 달러) 규모의 대출 상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반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1.5~2% 낮게 설정될 것임.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껀터, 하이퐁과 같은 중앙 직할시에 사회 주택 프로젝트를 우선 시할 것을 요청함. 베트남은 2025년까지 120만 가구를 위한 사회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240만 호의 사회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사회주택 프로젝트 중 301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총 155,800 호의 사회주택을 건설 완료했고, 400개 이상의 프로젝트(총 454,360 호 규모)가 현재 진행중에 있음.

[VN Express, 4. 4]

### ▶ OECD, 베트남 경제성장률 6.6% 전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은 6.6%의 GDP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2024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전망했음. 또한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주로 제조업(전자, 기계, 섬유, 신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중국의 코로나19 통제 완화 조치에 의해 주도된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베트남은 동남아의 5대 경제 대국 중 하나로 부상할 수 있었다고 전망. 하지만 글로벌 수요감소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위축 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동시에 국가 내 인플레이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할 것을 권고함.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관광을 어떻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베트남이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함.

[Vietnam Plus, 4. 3]

### ▶ 베트남, 1분기 외국인관광객 270만명...전년동기대비 29.7배 급증

2023년 1분기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27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30배 증가함.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치는 코로나19 이전의 약 60% 수준으로 올해 목표치인 800만 명의 3분의 1에 달했음. 또한,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중 아시아 국가에서의 입국은 193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3배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1분기 동안 전체 입국자의 50% 이상을 차지했고, 유럽지역에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38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3배 증가함. 베트남 정부는 비자 정책 완화를 요구하는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무비자 입국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E-VISA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VN Express, 3. 29]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Expansion of Yen Bai - Lao Cai Expressway
- Construction of Thuong Cat bridge across Red River
-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inseul\_y@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Expansion of Yen Bai - Lao Cai Expressway

<b>발주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 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VEC)</li> </ul>
<b>프로젝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위치 : 베트남 Yen Bai 성, Lao Cai 성</li> <li>○ 규모 : 약 380 백만 달러</li> <li>○ 프로젝트 단계 : Currently the project is in the stage of pre-investment and funding source arrangement</li> <li>○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total length of project: 83km</li> <li>- The section of Yen Bai -Lao Cai belongs to the whole route of Noi Bai- Lao Cai with total length of 264km; in which the scale of Noi Bai – Yen Bai is 4 lanes; and the scale of Yen Bai – Lao Cai is 2 lanes.</li> <li>- After 8 year operation, the section of Yen Bai – Lao Cai has high traffic volume, potentially dangerous traffic safety. So, for synchronous exploitation of the whole route, VEC wants to expanse the section of Yen Bai – Lao Cai from 02 lanes to 04 lanes.</li> <li>- Width of roadbed: 24m; Vtk = 100km/h.</li> </ul> </li> </ul>



(입찰정보)

□ Construction of Thuong Cat bridge across Red River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 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VEC)</li> </ul>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위치 : 베트남 Yen Bai 성, Lao Cai 성</li> <li>○ 규모 : 약 380 백만 달러</li> <li>○ 프로젝트 단계 : currently the project is in the stage of pre-investment and funding source arrangement</li> <li>○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total length of project: 83km</li> <li>- The section of Yen Bai -Lao Cai belongs to the whole route of Noi Bai- Lao Cai with total length of 264km; in which the scale of Noi Bai – Yen Bai is 4 lanes; and the scale of Yen Bai – Lao Cai is 2 lanes.</li> <li>- After 8 year operation, the section of Yen Bai – Lao Cai has high traffic volume, potentially dangerous traffic safety. So, for synchronous exploitation of the whole route, VEC wants to expanse the section of Yen Bai – Lao Cai from 02 lanes to 04 lanes.</li> <li>- Width of roadbed: 24m; Vtk = 100km/h.</li> </ul> </li> </ul>

<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베트남 사무소

### ■ LH 소개

LH는 1962년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1975년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통합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새롭게 설립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 목적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이다. LH의 미션을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며, 비전은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이다.

LH는 현재까지 신도시 1기, 2기, 3기를 포함하여 약 300만호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였으며, 현재 약 130만호의 임대주택을 운영 관리 중에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는 물론 9곳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였으며, 도시재생, 산업단지 조성 및 해외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경제발전 등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설 공기업이다.

LH 베트남 사무소는 2017년 설립되었으며, 흥연성 클린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VTK LTd를 설립(대주주)하였으며 현재 산업단지는 물론 사회주택, 스마트 시티 등 베트남 전역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검토 중에 있다.

### ■ LH 베트남 사업 추진 현황

#### 1. 흥연성 클린산업단지(한-베 경제협력산업단지, VTK)

2019년 경제부총리 면담 시 공식 의제화 되었으며, 2021년 7월 총리로부터 IPD승인을 받아 2021년 9월 VTK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공급공고 중에 있음. 클린산업단지는 한국기업 베트남 진출지원을 위해 조성한 143Ha 규모의 산업단지이며, 한국기업의 원활한 진출 지원을 위해 원스탑서비스는 운영 중에 있다.

사업주체는 LH(35%), KIND(25%), KBI건설(10%), 신한은행(5%) 그리고 로컬기업인 TDH Ecoland(25%) 총 5개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하였다.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 광역교통 위원장, 흥연성 성장, 코참 회장, 한인회 회장 등을 모시고 한-베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며, 한-베 경제협력 산업단지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현재 약 20%정도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추가 공급을 준비 중에 있다.





<클린산업단지(한-베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요)>



<클린산업단지 착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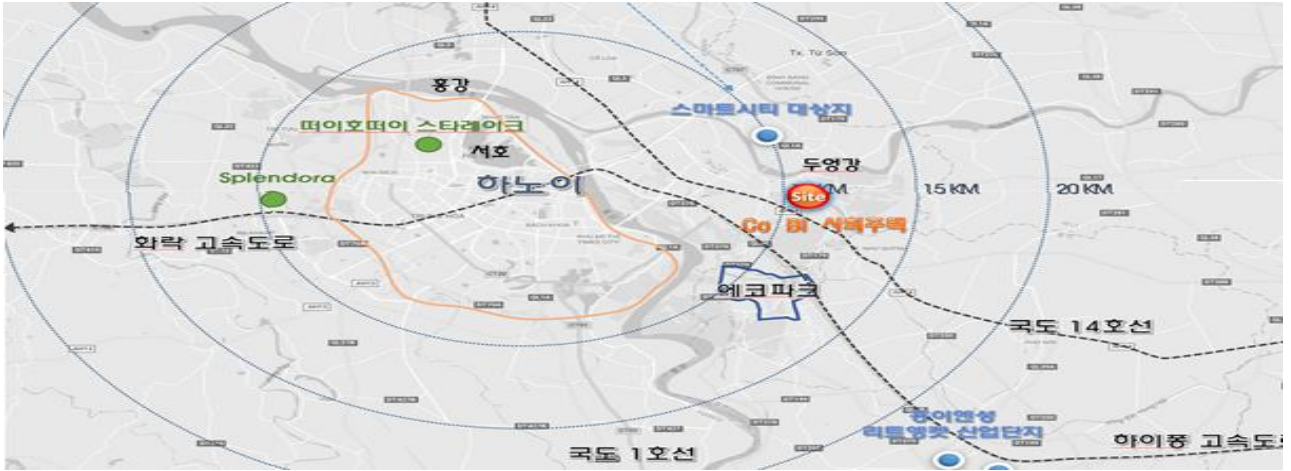


2. 하노이 사회주택

하노이 중심에서 동쪽으로 약 13km 떨어진 하노이 사회주택 부지는 하노이 자람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9Ha규모이다. 그리고 사회주택과 상업주택 약 1850호를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 로컬 파트너사와 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하노이 사회주택 또한 2019년 경제부총리 면담 시 공식 의제였으며, 한국 시공사 수주 지원 및 한국의 임대주택 제도 전파 등을 목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다.



<하노이 사회주택 위치>



### 3. 기타 사업

클린산업단지, 사회주택 뿐만 아니라 현재 LH는 베트남 전역에 산업단지, 사회주택, 스마트 시티 건설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북부에는 흥옌성 내에 산업단지, 중부는 후에성에 위치한 쯔마이랑꼬 경제구역 내 산업단지, 남부에는 스마트시티 건설 등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 중에 있다.

#### ■ LH 베트남 사무소 향후 계획

LH 베트남 사무소는 앞으로도 한국기업의 원활한 베트남 진출 지원 및 해외 수주 활성화를 위해 노력 예정이며,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코트라, KOICA, 수출입은행 및 타 공공기관들과 협업하여, 한국의 선진화된 스마트시티 건설 및 인프라 개발 노하우를 베트남에 수출하여 한국경제 발전 및 한-베 경제협력에도 이바지 할 계획이다. <끝>



## 2023 베트남 엑스포 한국관

KOTRA는 (재)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난 4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개최된 베트남 최대 종합전시회인 ‘베트남 엑스포’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하는 한국관을 운영하였다. 올해로 32회째 개최되는 베트남 엑스포는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주최하고, 한국을 비롯해 해외 16개국에서 5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 전시회는 참관객 수만 2만 명 이상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OTRA는 1999년부터 24회째 한국관을 구성해서 참가했으며, 한국관 전시 품목은 화장품, 식품·음료, 소재·장비, 패션·잡화 등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됐다.

KOTRA는 수출과 직결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참가 준비 단계부터 국내기업을 지원하였다. 사전 단계에서는 KOTRA의 B2B 온라인 플랫폼인 ‘바이코리아(buyKOREA)’ 내에 한국관을 개설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KOTRA의 빅데이터 플랫폼 ‘트라이빅(TriBIG)’을 활용해 바이어와의 매칭률을 높였다. 그 외에 참가기업별 베트남어 홍보물도 제작해 베트남 최대 유통망 윈커머스(Wincommerce) 등 주요 기업 150여 개사와 340여 건의 사전 맞춤형 일대일 B2B 상담 주선을 완료했다.

이종섭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은 “최근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베트남 엑스포 한국관에 참가한 우리 기업이 많은 수출 성과를 창출한 만큼, 올해도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사전·사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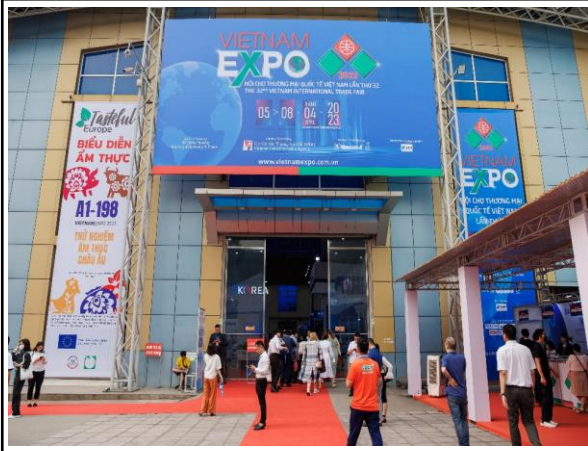
### □ 베트남 엑스포(Vietnam Expo 2023) 및 한국관 참가 개요

- 기간/장소: 2023. 4. 05.(수) ~ 08.(토) / Hanoi Int'l Exhibition Center(ICE)
- 주최: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전시홍보공사(VINEXAD)
- 연혁: 1991년 최초 개최, 올해 32회째 \* 한국관은 1999년부터 참여, 올해 24회째
- 한국관 규모: 총 52개 부스, 48개사
- 한국관 전시 품목: 식품·음료, 미용·화장, 소재·장비, 패션·잡화, 주방용품, 전기·전자





<행사 주요 사진>



베트남 팀코리아협의회 활동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베트남 하이퐁시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 □ 경영지원 세미나 개요

- 행사명 : 2023년 베트남 하이퐁시 진출기업 경영지원 국내 복귀지원 세미나
- 개최목적 : 진출기업 세무·노무·관세 이슈 및 국내 복귀 지원사업 안내
- 일 시 : 2023.4.20.(목), 14:00~17:00
- 장 소 : 하이퐁 선플라워 인터내셔널 빌리지(Sunflower International Village)
- 개최규모 : 정부 기관/ 협회 및 진출기업 등
- 주요내용
  - 경영지원 세미나
    - 발표(1) 최근 베트남 경제동향
    - 발표(2) 2023년 베 정부 주요 세무관리 동향
    - 발표(3) 진출기업 노무 관리 방안
    - 발표(4) 분야별 관세 애로사항 및 점검포인트
  - 국내복귀 및 구조조정 지원 사업 안내
    - 발표(5) 해외법인 청산·양도·철수 방안
  - Q&A 및 기업 애로사항 수집

### □ 하이퐁시 정부와의 네트워킹 만찬 및 코참 하이퐁지부 발대식

- 일시: 2023.4.20(목), 17:30 ~ 19:00
- 목적: 베트남 주재 한국 기업지원 기관, 협회와 시정부 주요 인사 네트워킹
- 참석자:
  - (베측) 하이퐁시 지방정부 관계자, 대표기업 등
  - (한측) 대사관, 코트라, 코참 방문단 외 진출기업 대표 등





<행사 주요 사진>



<끝>



베트남 팀코리아협의회 활동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의 영업 기능들을 현지로 이전시켜 현지화에 가속도를 높이려 합니다.”

태평양물산 송재익 하노이사무소 대표 인터뷰



반갑습니다 대표님! 태평양물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비즈니스뉴스 독자 여러분,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태평양물산 주식회사는 1972년도에 창립하였으며 작년 2022년도에 50주년을 맞이해 과거 50주년을 마무리하고 올해 51년차로서 새로운 50주년을 향해 또 다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로는 의류 봉제 분야 수출을 담당하는 **태평양 물산**이 있고, 주요 바이어사는 GAP, Old Navy, Underarmour, Columbia 등 입니다. 그리고 한국 주요 내수 브랜드의 생산의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내수 생산용 자회사인 **나디아 퍼시픽**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 바이어는 NGO(네셔널지오그래픽), MLB, 디스커버리 와 같은 아웃도어 제품사 들입니다. 또한, 셔츠를 생산하는 **이오(EO)**라는 자회사도 있으며 베트남 내 빈푹성과, 미얀마에서 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 브랜드사업으로 침구류 분야인 **리텐다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백화점에 직영으로 입점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D31**이라는 새로운 의류 브랜드를 런칭하여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츰 유사한 방식으로 브랜드에 대한 유통도 넓혀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평양물산의 매출액은 작년 2022년에 1조원을 조금 넘겨 영업이익은 약 600억원 이상을 차지하여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실적 호조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태평양물산의 베트남 외 다른 글로벌 네트워크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류 기반의 사업이다 보니 네트워크 글로벌화를 조기에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에 영업 및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해인 1993년도에 이를 기념하여 베트남 내 첫 번째 한국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VPA(Viet Pacific Apparel)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투자허가서는 외투 업체의 경우 20년 단위의 기준이었기에 2003년 이전에 투자한 회사인 하동 VPA(Viet Pacific Apparel)와 박장 지역의 공장은 투자 허가서를 갱신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이후 50년 기준으로 변경)

\* 태평양물산은 베트남 국내 8개의 본공장과 2개의 대표사무소를 운영 중

공장(8): 하노이, 박닌, 박장(3), 남딘, 타잉화, 빈푹 / 대표사무소(2) : 하노이시, 호치민시

베트남 내 한국인 주재원의 수 : 약 100명, 하노이사무소 직원 수 : 415명

보통 의류 쪽은 자켓류, 바지류를 다루는 ‘우븐’과 티셔츠류를 다루는 ‘니트’ 로 구분되는데 저희는 니트도 취급하지만 우븐 분야에 더 특화돼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지역에 우모(오리털) 생산 공장을 두고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리털 자켓, 패딩 자켓 등의 분야에선 전 세계적으로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수출시장은 미주지역이 약 90%정도이며, 나머지 10%는 유럽 및 아시아지역을 다루고 있으며 내수용 자회사를 위해 한국으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 태평양물산에서 CSR활동 또는 직원들과의 단합을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 바이어가 대부분 Big바이어들이기 때문에 바이어 측에서도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의 CSR활동이나 베트남 법 규정 이행실태를 강조합니다. 본사에서 실천중인 “해피투게더” 활동명을 베트남에도 가져와 약 15년째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이 진출해 있는 8개 지역에서 장애, 불우 학우 그리고 고아원 등에 물품과 옷을 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당 관할 지역의 고등학교들과는 1사 1교 결연을 맺어 연간사업으로 빔프로젝터, 책상 등의 교육 관련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복지 활동으로는 “해피밀”이라는 활동명으로 전직원에게 직원 1명당 월 30만 동씩 지원하여 회식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좋은 팀워크 관계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법인이 많은 특성상 남자직원들을 모아 축구 클럽, 체육대회, 골프운동 등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각 법인의 대표를 뽑아 시합경기도 종종 개최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 13년간 계시면서 느끼신 베트남의 변화 혹은 최근 비즈니스 관련 애로사항이 있으실까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전자 업체 등의 첨단산업 근무 희망자들이 증가하고, 또한 새로운 인력들의 최근 취업 트렌드가 비교적 급여액수가 높은 전자 업종 또는 서비스 업종으로 전환되다 보니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변 진출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노이 박닌, 박장 등의 주요 진출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하다가 인력난과 급여문제(베트남의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 타잉화(Thanh Hoa), 빈(Vinh), 응에안(Nghe An) 등 중부지방까지 사업장을 이동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부지역 기업뿐만 아니라 남부지역 진출기업은 이미 그런 현실을 마주한지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치민시의 경우 북부지역과 반대로 위쪽 지역인 빈, 다낭 지역 등으로 이전합니다. 서로 북부에선 내려가고, 남부에선 올라오는 셈이죠. 더군다나 현재 박닌, 박장 지역은 전자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봉제의 특징점은 한 번 배운 봉제기술은 십여년이 지나도 동종업계에서 근무가 가능하여 직업의 지속성은 있는 편입니다. 저희 회사도 오래된 숙련공들은 큰 이탈없이 잘 유지되는 반면에 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직원들은 근무지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장기 근속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베트남에 국한된 환경이라기 보다 봉제업계 속 공통된 애로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회사가 박닌지역에 진출할 당시 큰 외투기업으로 홀로 진출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신규 진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본사에 있던 직원들은 박닌에서 봉제업은 더 이상 힘들 거라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우려와 달리 약 10년여간은 나름 잘 영위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는 전기전자업체들이 활성화되고 추가 협력사들까지 진출하면서 인력 수급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문제입니다. 저희 회사가 베트남 내 법인이 많기 때문에 바이어 측에서 베트남 법 규정 준수 여부, CSR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계적으로 오딧(감사)을 진행하고 특히 인허가 사항을 중점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작년 말경 화재 이슈로 인해 베트남 내 소방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강화되었고, 최근 타잉화 공장 내 기능 변경으로 인해 수정된 레이아웃으로 소방 인허가를 신청 접수하였으나 건축 허가까지 갱신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 문제는 접수 이후 처리과정에 시간적 소비가 상당하고 허가 불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최근 저희 회사가 에너지 감축, 재생에너지 등의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데, 정식활동 전 태양광에 관한 정확한 규정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 인허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베트남 정부가 과도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소방과 건축에 대한 인허가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상황이며, 이러한 정책적인 애로사항은 저희만 겪는 애로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봉제 분야 종사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특히 베트남이 중국과 인접해 있는 국가다 보니 면화가 유명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부터 면바지, 면자켓 등의 제품이 밀수로 베트남에 들어와 베트남 내에서 수출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쪽에서 정상 수출을 하더라도 미국 세관 측에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중국산 면을 통관 시키려 한다는 끊임없는 의심으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물건이 수입되지 않는 경우 바이어사 또한 물건은 물론이거니와 돈도 묶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저희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를 주 생산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베트남에 있는 오퍼레이션을 줄이고 중국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 물량을 확대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는 저희 회사뿐만 아닌 다른 대형 한국계 회사들, 베트남 업체들이 모두 해당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중 베트남이 타 진출국가 중 오퍼레이션 비중이 제일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추가적인 투자 계획도 있으실지요?**

8개 법인 중 타잉화 공장을 가까운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초 타잉화 공장 건설 당시 3개동을 목표로 하였고, 현재 2개동을 운영 중이며 마지막 1개동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추가적으로 투자하여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무실 직원이 약 400명이 넘는데, 이유는 현지화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예전에는 본사에서 영업과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고, 베트남에서는 그에 따른 오더만 관리하는 소규모 형식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약 3년 전부터 영업 관련 업무를 세분화하여 새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바이어를 상대하고 오더를 받는 기능은 본사에서 하고, 나머지 발주부터 진행까지의 오퍼레이션 영업에 대한 업무는 현지에서 교육시키고 현지화에 더욱 집중하고자 현지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베트남의 업무 비중이 올라간 만큼 본사의 영업 기능들이 조금 현지로 이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주 사업은 의류 봉제 사업이기 때문에 신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규모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기회가 된다면 다른 분야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베트남 관심 기업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베트남은 여러가지 매력 많은 국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베트남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젊은 인력들이 많고 마인드도 젊어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인구절벽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에 반해 베트남은 젊은 친구들이나 더 어린 세대들이 학습열의가 높고 습득력도 뛰어나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3년간 베트남에서 지내며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직원들과 근무를 같이 해 왔는데 13년 전 젊은 친구들의 마인드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특히 업무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향상됐다는 걸 느낍니다. 업무에 임하는 태도를 비롯해 책임감도 있습니다. 저는 야근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 업무를 책임감 있게 한다고 보지 않고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잘 처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업무를 맡게 될 시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함께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끝>



## 베트남 법률상 자본금 설정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bhsjun@jplawvn.com | (84-4) 3724 5201~3

### 1. 들어가며

외국인의 베트남 투자는 투자법에 따라 반드시 법인설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투자자는 설립법인에 투자금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베트남 법인설립 및 투자금 출자를 위해서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정하게 되고, 이는 납입자본금 및 총투자자본금 설정을 통해 투자등록증(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및 사업자등록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에 반영됩니다.

### 2. 정관자본금과 총투자자본금

정관자본금은 반드시 베트남에 납입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법인 설립일로부터 90일 내로 모두 납입이 되어야 하는 납입 자본금이며, 총투자자본금은 위 납입의무가 있는 정관자본금과 대출 가능한 대출금(Loan Capital)으로 구성되어 향후에 대출을 통해 투자를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납입의무는 정관자본금에 한해 존재합니다.

몇몇 조건부 투자사항에 관한 업종을 제외하고 베트남의 최저 정관자본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업종에 따라 적은 투자금을 설정하여 투자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베트남 국민이 충분히 진행가능한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 시장침해 또는 현실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적절하지 않은 금액 등의 이유를 들어 담당 관청으로부터 투자허가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단으로부터 토지를 임대 받아 공장을 직접 건설하는 경우 최소한 토지임대료 및 공장건설 비용 이상의 정관자본금 설정이 필요합니다. 투자등록증 발급 신청 시 투자프로젝트의 위치가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 바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 이상의 투자금을 요구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정관자본금을 설정하셔야 법인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법인에 대해 출자자본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투자자의 자본과 법인의 자본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영업활동을 진행하다 초기출자자본을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에 투자자가 별도로 본인의 계산으로 금원을 지급할 수 없으며 법인의 재산으로 이전한 뒤 법인의 계산으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출자자금이 모두 소진되었다면 투자자의 재산을 법인재산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기자본을 증자하는 증자절차 또는 법인이 투자자를 비롯한 제3자로부터 대금을 차입하는 방법 등이 가능합니다.

총투자자본금의 경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납입의무가 있는 회사의 정관자본금과 차입이 가능한 타인자본금의 합으로 이루어 지는 바, 투자 한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투자금을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법인의 자기자본을 증가하는 것은 IRC 및 ERC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해당 행정절차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출의 경우 중앙은행 신고 등을 제외하면 사인간의 거래로서 대출계약을 통해 손쉽게 차입이 가능하고, 향후 상환을 통해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의 회수에 필요한 까다로운 감사절차를 피할 수 있어,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정관자본금의 증자보다는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정관자본금은 가능한 한 적게설정하고 총투자자본금을 가능한 많이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총투자자본금의 설정에는 실무적인 제한이 있는 바, 차입금의 경우 언제든지 베트남 국외로 상환되어 빠져나갈 수 있는 투자금액이므로, 총투자자본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높게 설정하는 것은 베트남 정부로서는 외화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정관자본금 대비 일정 금액 이상의 총투자자본금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담당관청으로부터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자본금을 30만불, 총투자자본금을 300만불로하는 것과 같이 1:10의 비율 설정하시는 경우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 3. 자본금 증자 절차

자본금의 증자는 같이 정관자본금의 증자 및 총투자자본금의 증자로 구성됩니다. 정관자본금의 경우 사업자등록증(ERC)에 기재되어 있고, 총투자자본금의 경우 투자등록증(IRC)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은 서류도 많지 않고 소요 시일도 3영업일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투자등록증의 경우 15영업일 및 준비서류도 매우 많습니다), 급히 자본금을 늘리고자 하시는 경우 총투자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정관자본금만 증자하여 ERC만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정관자본금만을 증자 하더라도 투자등록증상의 총투자자본금의 구성비율(납입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투자등록증도 함께 변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및 투자등록증이 함께 변경되어야 하며, 자본금의 증자를 하시는 경우 대출한도를 의미하는 총투자자본금도 함께 증자하시는 것이 향후 자본금 활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자본금의 증자절차는 몇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법이 사업자등록증 변경신청 서류 접수 전에 자본금 납입을 선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기업법은 자본금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업등록증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자본금의 변동이 있는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정관자본금 변경 행위, 즉, 자본금 납입이 신청서류 접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관자본금 증자를 위해서는 ERC변경신청서류 전에 투자금이 베트남의 정관자본금 계좌로 송금되어야 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ERC 변경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먼저 송금된 정관자본금이 자본금계좌에 반영되기 위해서 은행은 이러한 증자가 완료되어 새로 발급된 ERC 및 IRC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RC의 발급은 3영업일정도로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만, IRC의 발급에는 15영업일 때로는 각 변경 사유에 따라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납입된 자본금이 처리되지 못하고 은행계정에 묶여있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등록증을 먼저 선행하여 변경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각 시성마다 절차를 달리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끝>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그 특징

대한상사중재원 하노이사무소 유하영 소장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갈등 역시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 형태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해결방법인 소송으로만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생겼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의 복잡성과 경직성, 비용의 과중, 분쟁 내용에 대한 판결의 공개로 인해 제약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 아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눈을 돌립니다. 판결 이외의 분쟁해결 제도를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이라고 합니다.

### 각 ADR 제도의 특징

대표적인 ADR은 바로 조정, 알선 그리고 중재입니다. 먼저 조정은 2인 이상의 분쟁당사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합의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 3자(조정인)가 조력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재판절차와 다른 점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절차에 참여하고, 조정인의 결정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알선은 마찬가지로 제3의 기관 또는 개인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거나 지원한다는 그치는 반면, 조정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주도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정인은 분쟁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청해서 듣기도 하며,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조정과 알선 모두 대체적분쟁해결제도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조정절차에 참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분쟁해결 조건에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에 관한 정당한 해결책을 당사자에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양보에 의한 분쟁해결을 진지하게 원해야 합니다.

### 중재의 장점

반면 중재는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선정된 중립적인 제3자(중재인)가 그 분쟁에 관해서 법원의 판결효과와 동일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중재판정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3심제인 소송과 달리 단심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판정을 내리는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고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의 자격요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사건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억지할 수 있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데 유리합니다. 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건설, 금융, 합작투자), 그리고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IT, 지식재산권, 노사),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분야(첨단기술, 방위산업), 그리고 일반 대중이 자주 사용하며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부동산, 인테리어, 광고 등) 등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중재와 소송, 그 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비교

	소 송	중 재	조 정	알 선	협 상
개 입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판사, 중재인, 조정인 등)				자율적 해결
강 제 력	법적 구속력 있음		법적 구속력 없음		
유관기관	법 원	대한상사중재원 해외중재기관	일반조정/대한상사중재원 등 법원의 조정 행정형 조정/공정거래조정원, 소비자보호원 등		-

중재와 소송 비교



중 재



소 송

판단의 주체	중재인(당사자 선정)	판사(또는 배심원)
장소	당사자 합의	한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원
절차	당사자 합의	민사소송법

우리나라 유일의 상설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3월 22일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상설중재기관입니다. 국내뿐 만 아니라 국제 중재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분쟁사건을 처리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정한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은 법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각종 분쟁해결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분쟁종합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로 연락하시면, 계약서 작성 안내부터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다음 호에서는 어떻게 하면 중재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끝>



## 베트남 통관 HOT 뉴스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 < 베트남 신규 발효 예정 FTA 현황 >

**Q : RCEP 이후에 베트남이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 FTA가 있나요?**

**A :** 현재 베트남은 한국 외에 아세안, 호주 및 뉴질랜드, 중국, 홍콩, 인도, 일본, 칠레, EU, 러시아, 영국 등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RCEP 및 CPTPP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외에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베트남-E FTA) 및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연합과의 FTA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E FTA의 경우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FTA로, 2012년 5월부터 1차 협상을 시작하여 2018년까지 총 16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베트남 외교부 장관 Bui thanh son과 노르웨이 외무장관 Erling Rimestad의 만남에서 베트남-E FTA의 빠른 진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이스라엘 FTA의 경우 2015년 12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약 7년간의 협상을 거쳐 '23년 4월 양국의 협상이 타결되어, 2023년 내에 서명할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FTA로 양국간의 통상과 투자 뿐 아니라 IT, 녹색 성장, 디지털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연합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으며, 베트남-UAE CEPA는 무역 개방보다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뤄질 예정입니다.

Vcci wto center 및 하노이 무역관 종합

### < 국내 생산 가능 품목 리스트 개정 예정 >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기계, 장비, 대체부속, 운송수단, 원재료, 물자 및 반제품 리스트 개정을 위한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01/2023/TT-BKHDT)

해당 시행규칙 부록은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기계, 장비, 운송 수단 등 총 9개의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은 기존 21년도 8월 17일에 발표한 05/2021/TT-BKHDT를 대체하는 것으로, 2023년 6월 9일자로 발효할 예정이다.

베트남 수출입세법의 일부 면세 규정에서 베트남 국내에서 아직 생산이 되지 않는 기계, 장비류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에 면세 혜택을 활용하는 기업에서는 개정안 확인을 통해 추후 면세 혜택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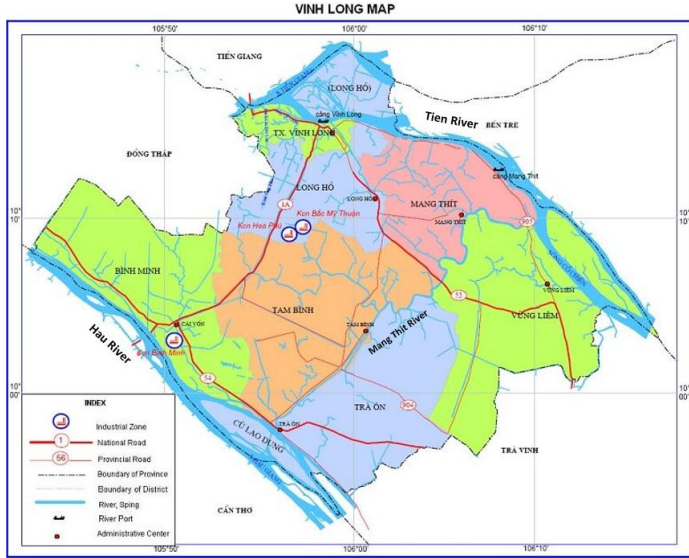
## 베트남 남부 유망 투자지 - 빈롱성

### □ 빈롱(Vinh Long)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1,525.73km<sup>2</sup>   ▪ 인구:1,028,822명</li> <li>• 도시거주 비율: 22.74%</li> </ul>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롱성은 메콩 삼각주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성으로 띠엔(Tien) 강과 하우(Hau) 강이라는 두 개의 큰 강 사이에 있음</li> <li>• 북쪽으로는 띠엔장(Tien Giang)성 및 벤째(Ben Tre)성, 서북쪽으로는 동탑(Dong Thap)성, 동남쪽으로는 짜빙(Tra Vinh)성, 서남쪽으로는 켄터(Can Tho)성, 하우장(Hau Giang)성, 석장(Soc Trang)성과 인접해 있음</li> </ul>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5개의 국도(1A, 53번, 54번, 57번, 80번) 및 10개의 성도로(901-910번)</li> <li>• 수로: 띠엔(Tien) 강, 하우(Hau) 강, 망틔(Mang Thit) 강</li> </ul>
GRDP 성장률 / 1인당 GDP('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대비 GDP 성장률: 11.28%</li> <li>• 성 1인당 GDP: US2,936 달러/년</li> </ul>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수출액: US 7.47억 달러 / 총 수입액: US 3.14억 달러</li> <li>•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23.34%), 서비스업(15.82%), 농수산업(2.01%)</li> </ul>
산업구조('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건설업 17.51%, 서비스업 40.51%, 농수산업: 36.72%</li> </ul>
노무여건('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내 노동가능연령 인구비율: 56.4%</li> <li>• 노동가능연령 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59.85%</li> <li>•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 비율: 20.25%</li> </ul>
최저임금('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롱시, 빈밍(Binh Minh) 군: VND4,160,000= US177 달러(2급지)</li> <li>• 롱호(Long Ho) 현, 망틔(Mang Thit) 현: VND3,640,000= US155 달러(3급지)</li> <li>• 타지역: VND3,250,000= US138 달러(4급지)</li> </ul>
외국인투자 ('22.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롱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73개 프로젝트, 10억 달러</li> <li>• (한국) 빈롱성 내 한국투자는 총 17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04억 달러 규모. 빈롱성에 투자한 15개 국가 중 투자건수 기준으로 1위, 투자금액 기준으로 3위</li> </ul>



## □ 투자환경



빈롱성의 위치 및 지도

### ○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메콩 삼각주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빈롱성은 도로 및 수로 교통이 편리하여 성 내 및 타지역 간 구간을 원활하게 연결함

- **(도로)** 10개 성도로(901-910번) 및 다음의 5개 국도:

- 1A 국도: 빈롱성 관통 구간은 37.2km임
- 53번 국도: 빈롱성 관통 구간은 47km이며, 빈롱성-짜빙성 연결 국도
- 54번 국도: 빈롱성 관통 구간은 49km이며, 빈롱성-동탑성, 짜빙성 연결 국도
- 57번 국도: 빈롱성 관통 구간은 7.5km이며, 빈롱성-벤째성 연결 국도
- 80번 국도: 빈롱성 관통 구간은 3.7km이며, 빈롱성-동탑성 연결 국도

- **(수로)** 빈롱성은 망틓(Mang Thit) 강으로 연결된 띠엔(Tien) 강과 하우(Hau) 강이라는 두 개의 큰 강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3,000~5,000톤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어 빈롱성은 메콩 삼각주 지역의 항구를 통한 지역 및 국제 무역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

- **(항구)**

- 빈롱성 3개 주요 항구: 빈롱 항구(용량 45만 톤/년), 빈밍(Binh Minh) 항구(용량 25만 톤/년), 안프억(An Phuoc) 항구(용량 20만 톤/년)
- 2050년까지의 2021-2030년 베트남 항구 시스템 개발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빈롱 항구 지역은 3개의 부두로 구성되어 있음: 빈롱시의 빈타이(Vinh Thai) 부두, 하우(Hau)강 내 빈밍(Binh Minh) 부두(빈밍군), 빈편(Binh Tan)현의 부두임.





- (철도): 빈롱성을 관통하는 호치민-껀터 철도는 2030년까지 국가 철도 네트워크 마스터 플랜에 포함됨.



- (항공): 빈롱시 중심에서 껀터(Can Tho) 국제공항까지 43km, 떤선녓(Tan Son Nhat) 국제공항까지 135km임.

○ 관광 및 천연자원

- (관광) 빈롱성의 관광 특징은 생태, 강, 운하 및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00개 이상의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음. 그 중 66개(국립 유적지 11개 및 성급 유적지 55개 포함)가 국립 및 성급으로 등급이 매겨졌으며, 문화·역사 유적지 및 많은 정원들을 보유함.



자온(Tra On) 수상시장



안빈(An Binh) 섬



망틏(Mang Thit) 벽돌 공장



미투언(My Thuan) 다리





- **(광물):** 빈롱성은 건축 자재용 강모래와 점토가 있으며 강모래는 총 매장량이 약 1.3억m<sup>3</sup>이고, 점토는 총 매장량이 약 2억m<sup>3</sup>임. 벽돌, 타일, 도자기 등 생산을 위한 고품질의 원료인 것으로 평가됨.
- **(수자원)** 빈롱성에 강과 운하 시스템(대소 강 약 10개, 운하 40개, 도랑 152개)은 서로 얽혀 있으며, 총 길이는 954.1km임. 3개의 주요 강인 꼬지엔(Co Chien)강, 하우(Hau) 강 및 망탓(Mang Thit) 강이 있으며, 일상 생활,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한 안정적 물 공급을 보장함.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중앙정부의 공통 투자 인센티브 정책

- **(법인 소득세 및 토지세):** 현행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음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
- **(수입세):**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D-CP 의결서(2016.09.01)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하여 5년간 면세 등

투자지역	법인세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투자우대지역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자온(Tra On) 현, 빈탄(Binh Tan) 현, 봉리엔(Vung Liem) 현, 망탓(Mang Thit) 현, 탐빈(Tam Binh) 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10년간 세율 17%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li> <li>•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li> </ul>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5년간 계속 면제</li> <li>•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1년간 계속 면제</li> <li>•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없는 프로젝트: 7년간 계속 면제</li> </ul>

- **(빈롱성의 개별 투자 인센티브 정책):** 빈롱성 투자 지원 정책 규정에 관한 인민회의의 제97/2018/NQ-HDND 의결서(2018.02.01)는 다음과 같은 12개의 지원 정책을 포함함

- |   |                                      |
|---|--------------------------------------|
| 1. 투자 준비를 위한 자금지원   | 2. 보상금 및 부지정리비 지원                    |
| 3. 폐수처리장 건립을 위한 재정지원  | 4. 신용지원                              |
| 5. 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교통 인프라 구축 지원  | 6. 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의 인프라 사업 투자지원 |
| 7. 첨단 농업, Good Agricultural Practices(GAP)에 따른 야채 생산 지역, 양질의 쌀 생산지 구축 등의 투자 프로젝트 지원 | 8. 인재 육성 지원                          |
| 9. 광고비 지원   | 10. 투자진흥 자금지원                        |
| 11.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 12. 투자유치 캠페인 자금지원                    |



## □ 외국인 투자현황

### ○ 외국인 투자(FDI) (2022.12월말 기준)

총 73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10억 달러가 투자 등록됨.

### ○ 빈롱성 10대 FDI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US 백만 달러)
1	Vinh Long Footwear Co.,Ltd	운동화, 가죽신발, 스포츠용품 생산	세이셸	133,450,000
2	Ty Bach Company Limited	수출용 신발 생산	대만	70,000,000
3	Vietnam Chingluh Shoes Co., Ltd	신발 생산	영국	45,000,000
4	DE HEUS Limited Liability Company – Branch 2	가축 사료 가공 공장	네덜란드	40,110,000
5	DE HEUS Limited Liability Company – Vinh Long Branch	수생동물 양식용 사료 가공	네덜란드	38,940,000
6	CJ Vina Agri Co., Ltd	동물 사료 가공	한국	36,480,000
7	Leader Garment (Vietnam) Co., Ltd	섬유	사모아	29,250,000
8	New Hope Singapore Pte. Ltd	동물 사료 가공	싱가포르	25,000,000
9	Vietnam Chingluh Shoes Co., Ltd	신발 생산	영국	25,000,000
10	Kyungshin Vietnam Company Limited	자동차, 차량용 부품 및 액세서리 생산 공장	한국	24,500,000

### ○ 한국계 투자 (2022.12월말 기준)

빈롱성 한국투자는 17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1.04억 달러가 등록되어 있으며, 빈롱성에 투자한 15개의 국가들 중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1위, 투자금액 기준으로 3위를 차지함.

### ○ 빈롱성 내 TOP 한국 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위치	투자금액 (US 달러)
1	CJ Vina Agri Co., Ltd – Vinh Long Branch	동물 사료 생산	화푸(Hoa Phu) 공단	36,480,000
2	Kyungshin Vietnam	자동차, 차량용 부품 및 액세서리 생산 공장	화푸 공단	24,500,000
3	Sungjin Vinh Long Vina	배낭, 가방 가공	화푸 공단	19,300,000
4	CJ Vina Agri	동물 사료 생산	빈밍(Binh Minh) 공단	9,970,000
5	Neobags Vietnam	배낭, 가방 가공	다잉득(Thanh Duc) 마을	3,190,000



□ 공단 현황

○ 공단/클러스터 정보

순번	공단명	면적 (ha)	주요정보	투자자
1	화푸(Hoa Phu)	250.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율: 100%</li> </ul>	Hoa Phu Joint Stock Company ( <a href="http://www.kcnhoaphu.com.vn">www.kcnhoaphu.com.vn</a> )
2	빈밍(Binh Minh)	134.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율: 93.07%</li> <li>토지 임대료: 약 98-105USD/m<sup>2</sup>(VAT 별도)</li> <li>투자유치산업: 농수산물 가공, 소비재 생산, 섬유, 목재, 수공예품, 전기, 포장, 건축 자재, 세라믹 타일, 화장품 생산, 산업 및 농업 생산을 위한 기계 및 장비 제조 및 설치 등</li> </ul>	Hoang Quan Me Kong Real Estate – Consultancy – Trading – Service Joint Stock Company ( <a href="http://www.hoangquanmekong.com.vn">www.hoangquanmekong.com.vn</a> )
3	동빈(Dong Binh)	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설립으로 부지 정리 진행 중임</li> </ul>	Tni Vinh Long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4	질리맥스 빈롱 (Gilimex Vinh Long)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설립으로 부지 정리 진행 중임</li> <li>투자유치산업: 재생에너지, 하이테크 산업, 부품 제조,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농산물 보존 및 가공, 가공 산업 등</li> </ul>	Gilimex Vinh Long Industrial Park Joint Stock Company ( <a href="http://www.gilimex.com">www.gilimex.com</a> )
5	안딩(An Dinh)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 절차 수행 중임</li> <li>투자유치산업: 식품 가공, 소비재, 섬유, 수공예품, 전자 조립, 포장, 제약·화장품, 건축 자재 생산, 서비스 및 친환경 산업 등</li> </ul>	Long Hau Corporation ( <a href="https://longhau.com.vn">https://longhau.com.vn</a> )

□ 빈롱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빈롱성 투자진흥 및 기업지원 센터	Mr. Nguyen Khoa Mr. Nguyen Chi H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el: +84-977 090 097 +84-339 918 866</li> <li>Email: <a href="mailto:nguyengkhoa2016.skhdt@gmail.com">nguyengkhoa2016.skhdt@gmail.com</a> <a href="mailto:chihai.skhdt@gmail.com">chihai.skhdt@gmail.com</a></li> <li>Website: <a href="http://ipbc.vinhlong.gov.vn">ipbc.vinhlong.gov.vn</a></li> </ul>

<끝>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3. 3. 20 기준 누계		2023. 1. 1 ~ 3.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619	81,524.38	81	75.81	474.47
일본	5,050	69,385.06	63	185.21	319.45
중국	3,651	23,852.61	77	334.61	551.77
싱가포르	3,189	72,517.56	75	1,353.48	1,686.52
대만	2,943	36,886.83	33	273.2	477.44
홍콩	2,206	29,997.27	42	414.01	451.18
미국	1,239	11,433.86	20	15.15	54.63
버진아일랜드(영)	901	22,705.71	9	8.3	54.76
말레이시아	715	13,085.57	7	0.87	3.65
태국	691	13,140.16	8	10.17	32.35
네덜란드	421	13,894.87	7	0.41	377.21
기타	6,256	55,645.59	100	351.93	963.5
합계	36,881	444,069.48	522	3,023.15	5,446.94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3. 3. 20 기준 누계		2023. 1. 1 ~ 3.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6,099	264,200.15	150	2,346.62	3,976.60
2	부동산 경영	1,092	66,749.05	15	362.11	765.76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0	38,320.66	6	7.35	9.77
4	호텔, 외식서비스	942	12,685.79	13	1.67	11.24
5	건설	1,799	11,086.24	11	58.62	105.79
6	도소매, 유지보수	6,302	10,474.84	137	71.35	275.55
7	물류운수	1,010	6,307.72	23	131.82	150.77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213	4,998.24	76	13.29	71.23
9	정보통신	2,765	4,965.02	61	10.89	49.39
10	채광	108	4,894.57	-	-	0.2
11	교육, 양성	639	4,592.24	11	1.36	5.51
12	농, 임, 수산	530	3,858.51	6	11.3	1.81
13	예술 오락	141	3,423.20	1	4.6	5.23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3	3,042.47	-	-	-
15	의료와 사회복지	154	1,753.79	-	-	0.26
16	행정, 지원 서비스	570	1,036.22	7	1.56	5.75
17	금융, 은행, 보험	91	945.54	5	0.61	11.47
18	기타 서비스	146	724.15	-	-	0.6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36,881	444,069.48	522	3,023.15	5,446.94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20	2021	2022	2023.3(누계)
수 출	2,826.5	3,363.1	3,713	793.01
수 입	2,627	3,322.3	3,389	744.8
무역수지	199.5	40.8	324	48.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20	2021	2022	2023.3(누계)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1,183	57,537	57,994	13,424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44,576	50,828	55,536	12,034
기계/플랜트 및 부품	27,193	38,344	45,751	9,850
섬유/직물제품	29,809	32,753	37,566	7,171
신발류	16,791	17,751	23,895	4,329
원목 및 목제품	12,371	14,809	16,011	2,813
철강제품	5,258	11,795	7,993	1,720
수송수단 및 부품	9,090	10,616	11,988	3,147
수산물	8,412	8,886	10,923	1,829
원사(Yarn)	3,736	5,612	4,713	940
기 타	74,235	87,379	98,934	22,045
합 계	282,654	336,310	371,304	79,30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20	2021	2022	2023.3(누계)
전자제품 및 컴퓨터	63,971	75,440	81,884	19,313
기계/플랜트 및 부품	37,251	46,296	45,192	9,209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645	21,434	21,126	1,900
의류(원단)	11,875	14,324	14,706	2,984
플라스틱 원료	8,397	11,685	12,387	2,293
각종 철강	8,066	11,523	11,920	484
기타 비금속	6,052	8,611	9,253	1,907
플라스틱 제품	7,274	7,959	8,119	1,655
화학제품	5,741	7,627	9,144	1,847
화학물질	5,016	7,735	8,747	1,774
기 타	92,412	119,600	136,423	31,123
합 계	262,700	332,234	358,901	74,48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3(누계)
1	미국	61,347	77,077	96,293	109,388	20,764
2	중국	41,414	48,905	56,009	57,702	11,922
<b>3</b>	<b>한국</b>	<b>19,720</b>	<b>19,107</b>	<b>21,945</b>	<b>24,293</b>	<b>5,852</b>
4	일본	20,413	19,284	20,128	24,232	5,354
5	홍콩	7,156	10,437	11,996	10,936	1,916
6	네덜란드	6,881	6,999	7,686	10,430	2,360
7	독일	6,555	6,644	7,286	8,968	1,891
8	인도	6,674	5,235	6,259	7,961	2,060
9	태국	5,272	4,917	6,161	7,476	1,867
10	영국	5,758	4,955	5,765	6,065	1,406
	기타	82,999	79,094	96,782	103,853	23,910
	<b>합계</b>	<b>264,189</b>	<b>282,654</b>	<b>336,310</b>	<b>371,304</b>	<b>79,302</b>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3(누계)
1	중국	75,452	84,187	109,874	117,866	23,635
<b>2</b>	<b>한국</b>	<b>46,935</b>	<b>46,895</b>	<b>56,155</b>	<b>62,088</b>	<b>12,293</b>
3	대만	15,173	16,701	20,772	22,631	4,575
4	일본	19,526	20,341	22,648	23,373	5,282
5	미국	14,365	13,713	15,270	14,470	3,023
6	태국	11,656	10,968	12,564	14,092	2,905
7	오스트레일리아	4,456	4,677	7,946	10,144	2,130
8	말레이시아	7,291	6,575	8,148	9,124	1,820
9	인도네시아	5,703	5,382	7,587	9,641	1,912
10	인도	4,538	4,435	6,950	7,086	1,631
	기타	47,975	48,826	64,320	68,386	15,283
	<b>합계</b>	<b>253,070</b>	<b>262,700</b>	<b>332,234</b>	<b>358,901</b>	<b>74,489</b>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3(누계)
수출	48,178(-0.9)	48,510(0.7)	56,729(16.9)	60,972(7.5)	12,473
수입	21,071(7.3)	20,579(-2.3)	23,965(16.5)	26,726(11.5)	6,780
무역수지	27,107	27,931	32,763	34,246	5,693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9	2020	2021	2022	2023.3(누계)
반도체	10,730(-1.9)	11,501(7.2)	14,026(22)	16,240(15.8)	3,121(-26.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970(-10.5)	9,552(19.9)	12,050(26.1)	12,527(4.0)	2,331(-30.9)
석유제품	2,196(11.2)	1,196(-45.5)	1,157(-3.2)	3,733(222.3)	891(-25.6)
무선통신기기	2,932(11.4)	3,460(18)	3,315(-4.2)	2,358(-29.2)	565(-18.1)
합성수지	1,624(-2.1)	1,615(-0.6)	2,415(49.5)	2,581(6.9)	468(-43.1)
기구부품	2,230(-4.4)	2,241(0.5)	2,405(7.3)	2,194(-8.8)	429(-29.5)
자동차부품	668(40.9)	673(0.8)	924(37.3)	1,168(26.4)	225(-12.7)
플라스틱 제품	1,210(0.4)	1,115(-7.8)	1,174(5.3)	1,067(-9.2)	218(-21.9)
계측제어분석기	783(12.4)	669(-14.5)	957(43.0)	793(-17.1)	212(-8.6)
철강판	1,157(10.4)	1,052(-9.1)	1,267(20.4)	1,069(-15.6)	200(-35.3)
기타	16,678	15,437	17,039	17,242	3,813
<b>합계</b>	<b>48,178(-0.9)</b>	<b>48,511(0.7)</b>	<b>56,729(16.9)</b>	<b>60,972(7.5)</b>	<b>12,473</b>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9	2020	2021	2022	2023.3(누계)
무선통신기기	5,691(17.6)	4,980(-12.5)	5,579(12)	5,986(7.3)	1,202(-32.6)
의류	3,646(2.1)	3,145(-13.7)	3,393(7.9)	3,840(13.2)	987(9.9)
컴퓨터	679(25.9)	1,270(87.1)	1,659(30.6)	1,948(19.1)	734(7.1)
신변잡화	1,053(7.4)	1,029(-2.2)	984(-4.4)	1,250(27.2)	354(17.3)
반도체	471(19.1)	561(18.9)	750(33.8)	787(5.0)	348(81.4)
산업용 전자기기	479(14.8)	574(20)	725(26.2)	970(33.8)	310(47.5)
목재류	657(-17.1)	632(-3.9)	755(19.5)	942(24.8)	215(-2.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197(5.2)	1,027(-14.2)	876(-14.7)	783(-10.5)	156(-22.2)
기구 부품	512(15.1)	481(-5.9)	624(29.6)	654(4.8)	125(-23.4)
영상기기	356(-2)	406(14)	460(13.2)	463(0.7)	114(-25.4)
기타	6,331	6,474	8,161	9,103	2,235
<b>합계</b>	<b>21,072(7.3)</b>	<b>20,579(-2.3)</b>	<b>23,966(16.5)</b>	<b>26,726(11.5)</b>	<b>6,780</b>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2~2023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2년(연간)	%	3.6	7.6	8.7	5.3	8.0	
	2022년 4Q	%	2.1	7.2	7.0	5.0	5.9	
	2023년 1Q	%	0.1*	6.6*	N/A	N/A	3.3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2년(연간)	-	124.9	N/A	126.2	1.39	7.8%
		2023년 1월	-	119.3	12.7	127.1	N/A	△8.0%
		2023년 2월	-	119.0	10.1	120.6	N/A	3.6%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2년(연간)	-	N/A	N/A	120.8	N/A	N/A
		2023년 1월	-	49.8	53.5	118.6	51.3	47.4
		2023년 2월	-	50.0	52.7	118.4	51.2	51.2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2년(연간)	-	108.4	N/A	100.5	119.9	N/A
		2023년 1월	-	111.4	N/A	N/A	123.0	N/A
		2023년 2월	-	112.0	N/A	N/A	122.4	N/A
	소매판매	2022년(연간)	-	100.3	4.5%	161.5	6.2%	19.8%
		2023년 1월	-	107.9	6.3%	171.0	△0.6%	20.0%
		2023년 2월	-	91.2	6.6%	166.6	0.6%	13.2%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2년(연간)	%	6.1	5.8	3.3	4.2	3.15
		2023년 1월	%	6.6	8.7	3.7	5.3	4.9
		2023년 2월	%	6.3	8.6	3.7	5.5	4.3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2년(연간)	%	N/A	N/A	11.6	3.87	△11.0(누계)
		2023년 1월	%	N/A	N/A	N/A	N/A	△19.8(누계)
		2023년 2월	%	N/A	N/A	N/A	N/A	△38.0(누계)
고용	실업률	2022년(연간)	%	2.1	N/A	3.8	N/A	2.3
		2022년 4Q	%	1.9	4.3	3.6	N/A	2.3
		2023년 1Q	%	1.9	4.8	N/A	N/A	2.3
무역	수출증가율	2022년(연간)	%	15.6	14.5	25.0	26.1	7.1
		2023년 1월	%	△9.6	△13.1	1.4	16.4	△21.3
		2023년 2월	%	△3.2	△18.1	9.8	4.5	11.0
	수입증가율	2022년(연간)	%	20.1	17.3	31.3	21.0	8.6
		2023년 1월	%	△11.3	4.1	2.2	1.3	△28.9
		2023년 2월	%	△4.7	△12.1	12.4	△4.3	△6.7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은 KOTRA, 대한상공회의소, 코참과 함께  
우리 진출기업들의 비즈니스환경 개선과 사업기회 발굴을 위한  
**MEET KOREA 2023** 행사를 **박닌성**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북부 핵심 경제지역(Northern Key Economic Region)  
및 추가 3개성을 포함한 10개 성·시의 고위급(당서기 혹은 성장급 등)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이 베트남 지방성·시와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정부에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본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개요

#### 일시

2023년 5월 17일(수)~18일(목)

#### 장소

- 5.17일(수) : 베트남 박닌성 인민위원회 청사(Bac Ninh People's Committee Hall)  
(주소 : No. 10 Phu Dong Thien Vuong, Suoi Hoa, Bac Ninh)
- 5.18일(목) : 베트남 박닌시 쟁박문화센터(Kinh Bac Cultural Center)  
(주소 : No. 2 Kinh Duong Vuong, Suoi Hoa, Bac Ninh)





**참석자 규모: 약 350명**

**한국측(140명)**

대사관, KOTRA 등 공공기관 및 현지진출 대표기업, 진출 검토기업 등

**베트남측(210명)**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 및 10개 지방성·시 고위급 지도자 등

**참여 지방성 명단**

**북부 핵심 경제지역(Northern Key Economic Region)**

하노이시, 빈푹성, 박닌성, 하이퐁시, 꽝닌성, 하이즈엉성, 흥옌성

및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북부 추가 3개 지역

박장성, 타이응웬성, 푸토성

**부대행사**

**5.18일(목) 오전 일정 2가지 프로그램(비즈니스 미팅, 산업시찰) 중 택 1**

※ 선택된 프로그램에 따라 하노이발 셔틀버스 구분하여 탑승

**비즈니스 미팅**

- 일시 : 5월 18일(목) 9:00 ~ 11:45, 13:30 ~ 14:20
- 장소 : 베트남 박닌시 깡박문화센터(Kinh Bac Cultural Center) 2층 회의실

**산업단지 시찰**

- 일시 : 5월 18일(목) 9:00 ~ 11:45
- 장소 : 박닌성 옌퐁 2C산업단지(Yen Phong 2C Industrial Park)

**전시부스 운영**

- 베트남 측 홍보부스 외 참여 희망 한국기업 및 기관의 홍보전시부스와 KOTRA 홍보부스 운영(한국측, 베트남측 총 20여 개 부스 예상)
- 전시부스 신청 **선착순 접수**(참가등록 신청서에서 등록 가능)







## 주요 일정

5월 17일(수)

○ Connect Bac Ninh - Korea 행사(박닌성 협력 세미나)

- 참석자 : 대사관, KOTRA, 대한상의, 코참 및 희망 우리기업

시간	프로그램(잠정)
15:00 ~ 17:30	- 개회사(박닌성 당서기)
	- 축사(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 박닌성 사회경제개발 및 투자환경 영상 시청
	- 발표 : (베) 박닌성 투자기획부 또는 인민위원장
	- Q&A 세션
17:30 ~ 19:30	- 공식만찬

5월 18일(목)

○ Meet Korea 2023 Conference(메인행사)

시간	프로그램(잠정)
9:00 ~ 11:45	- 부대행사 • 비즈니스 미팅(Kinh Bac 문화센터) 또는 • 산업단지 시찰(옌퐁 산업단지)
12:00 ~ 13:15	- 오찬
13:30 ~ 14:20	- 전시부스 개막식(희망 기업에 한해 비즈니스 미팅 속개)
14:30 ~ 14:50	- 행사 소개
14:50 ~ 15:10	- 개막 세션(고위급 기조 연설) ※ 베트남 외교부 고위 인사, 박닌성 당서기, 주베트남한국대사
15:10 ~ 16:15	- Session 1. 한국과 베트남간의 무역투자 확대방안
16:15 ~ 17:30	- Session 2. 한국과 베트남간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증진방안
17:30 ~ 17:45	- 폐막 세션
18:00 ~ 19:30	- 공식만찬





비즈니스 미팅(B2BG 네트워킹)

- 비즈니스 미팅(B2BG 네트워킹) \* 5.18일(목) 9:00~11:45, 13:30~14:20
  - 성·시별 투자 유치 희망 프로젝트 정보를 취합하여 안내드리오니 관심기업들은 참가 등록 시 구체적 내용 작성 요망
  - ※ 성·시별 투자 유치 희망 프로젝트 정보 바로가기
  - 참가기업의 성·시별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지방성에 사전 전달하고, 행사 당일 해당기업과 성·시별 책임자가 면담하여 애로 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 비즈니스 미팅(오전 9:00~11:45) 중 일부 지방성과의 면담 시 한국대사관과 지방성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
  - 비즈니스 미팅 시 별도 통역 지원 없음

셔틀버스

- 출발/도착 장소 : 베트남 외교부 청사(MOFA building)
  - 2 Le Quang Dao, Me Tri, Nam Tu Liem, Ha Noi
- 출발 일시 : 5월 18일(목) 07시 30분
- 5월 18일 오전 선택 프로그램에 따라 탑승차량 및 하차 장소 상이함

숙박

- 숙박 안내(Promotion 적용 금액 제공)
  - 호텔명 : Grand Phoenix Hotel Bac Ninh
  - (주소 : 25 Ly Thai To, Bac Ninh City, Bac Ninh)
  - 숙박 비용 : 디럭스 더블베드/트윈베드 룸 1,300,000동/박 (조식 및 제세금 포함)

신청 링크

여기(링크 포함)를 누르시면 신청 링크로 자동 연결됩니다

신청 문의

KOTRA (Tel) +84-243-946-0511(531), (E-mail) joara@kotra.or.kr  
코참 (Tel) +84-243-555-3341, (E-mail) info@kochamvietnam.com







개발협력 웨비나 시리즈 1화: 베트남

2023년도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개발협력 웨비나 시리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의 정책 대응 및 공여국의 역할

**주최** KDI국제정책대학원

**시간** 2023년 4월 27일(목), 오후 2:00-3:30

**장소** 온라인(영어로 진행, 영-한 동시통역 제공)  
\*사전등록자에 한해 Zoom링크 이메일 발송 예정

**프로그램**



시간(KST)	내용
14:00-14:15	개회사: 이진수 연구협력처장(KDI국제정책대학원) 축사: Nguyen Vu Tung (주한 베트남 대사)
14:15-14:30	발표 1 베트남 전력분야의 발전현황 및 전망 · 발표자: Nguyen Van Bao (前 베트남 Super Energy Corporation, 現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사과정)
14:30-14:45	발표 2 베트남의 녹색성장 전략과 신재생에너지 부문 민간투자 · 발표자: Phan Thi Song Thuong (베트남 다낭 사회과학원 박사)
14:45-15:00	발표 3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침 · 발표자: Chu Long Tuan (베트남 기획투자부 부장)
15:00-15:15	발표 4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위험의 양립 방안 · 발표자: Muthukumara Mani (세계은행 환경 및 기후변화 수석경제학자)
15:15-15:35	질의응답 및 토론 · 토론자: 김영재 (KDI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

**사전등록 링크** <https://forms.gle/ZnWqoLafz46WhEJ7>

문의 KDI대학원 국제협력팀(044-550-1291, icdwebinar@kdis.ac.kr)

